

작품 내용

제 목	[이름 없음] 뒤의 이름으로
내 용	대학교 때 아서 밀러의 《시련(the crucible)》이라는 희곡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작품은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벌어진 세일럼 재판(일명 ‘마녀재판’)을 소재로 한다. 세일럼의 소녀들 몇 명은 한밤중에 ‘금지된 춤’을 추다 목사에게 걸리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녀에게 홀려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한마디로 마을엔 순식간에 “마녀가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주민들은 각자의 원한 및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를 마녀로 고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제의 소녀들 중 애비게일은 이때다 싶어 내연관계였던 존의 아내도 마녀라고 고발한다. 존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지만 그 과정에서 덩달아 마녀로 몰리게 되고 재판관들은 “마녀라고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고 자백을 강요한다. 결국 존은 자백서에 서명하지만, 자백서가 교회 문에 붙어 모두에게 공개될 것이며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마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백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찢어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Because it is my name! Because I can ‘t have another in my life(왜냐하면 이것은 내 이름이니까! 내겐 평생 이 이름 하나뿐이니까!)” “How may I live without my name?(이름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결국 존의 사형이 집행되는 목소리와 함께 작품은 끝이 난다. 작품에서 존이 말한 ‘이름’은 단순한 성명이 아니다. 집단적 광기와 그릇된 권력 앞에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양심, 명예, 평생 살아온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남느니 목숨을 버려서라도 진실된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이다. “I have given you my soul; leave me my name!(내 영혼은 이미 주었으니, 제발 내 이름만은 남겨 두시오.)” 이름. 한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받고, 죽으면 묘비 위에 새겨지는 것. 그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 갔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 그렇게 한 사람을 상징하는 중대한 글자이자 그 사람 자체이기에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과 더불어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며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지라도 내 몸과 같은 ‘이름’을 표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스무 살에 처음 접한 존의 대사는 내 뇌리에 강하게 박혔고 이후 16년간의 작가 생활에 일종의 등대 같은 신념이 되었으나 부끄럽게도 많은 순간 나는 내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

애초에 나는 나 자신을 상징하는 실명에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다. 그것은 곧 나와 같아서 그 이름으로 어떤 글을 내놓고 평가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장르마다 필명을 두고 그 뒤에 숨었다. 그것은 실명을 지키는 일종의 방패였다. 그리고 방패는 상황에 따라 가차 없이 버려지기도 했다.

웹소설, 롱폼 드라마처럼 IP가 중요한 장르에서는 필명도 목숨처럼 지켰지만, 종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저작물 개발 용역을 할 때에는 모든 저작권이 회사에 있는 것에 동의하고 일정한 고료를 대가로 법인의 창작 행위를 대리해 주었다. 소재부터 캐릭터, 전체 스토리까지 전부 직접 기획한 경우라도 어떤 불만도 갖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신 확실한 대금이 지급되는 매절 계약의 장점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법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계약이라는 점엔 동의한다.

“이 혹독한 사회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경제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저작권쯤이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때로는 작가의 권리가 거의 없는 불리한 계약도 서슴없이 체결하곤 했다. 그 결과, 어떤 용역 계약에서는 내가 집필한 스크립트가 영상으로 촬영되고 제작이 완료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쓰인 촬영본도 받아보고, 내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아 리딩도 지켜보고, 작가라는 이름으로 촬영장도 방문해 보았다. 그 모든 순간은 경이로울 정도로 벅찬 경험이었지만, 결국 그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 극본은 ‘없음’으로 표기된다. 아니, 극본 자체가 표기되지 않는다.

“드디어 데뷔하는 거야?” 묻는 주변인들에게도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니까.

그 사실이 인지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애초에 경제적 이유로 저작권을 흔쾌히 양도해 놓고 뒤늦게 부당하게 느껴진다거나 속이 쓰려서가 아니었다.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한 내 인식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가벼운지 깨달은 탓이었다.

어떤 상황에선 “저작권은 작가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며 존 프락터와 같은 비장함으로 이름의 무게를 강조하고, 어떤 상황에선 “저작권쯤이야”라며 이름 없음으로 나올 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노력했다. 저작자의 권리. 그것의 경중은 내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던 것이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깨달은 지금도 나는 종종 현실적인 이유로 권리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도 이제는 당장의 실익보다 내가 넘길 권리에 대한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세상엔 수많은 형태의 계약이 있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나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는 선택과, 인식조차 못하고 휩쓸리듯 하는 선택은 그 의미부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존 프락터가 설령 목숨을 대가로 거짓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선택이다. 서로가 서로를 거짓으로 공격했던 그 마을의 누구도 존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존 프락터는 목숨을 버리고 이름을 택했다. 그 선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가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작가에겐 이름과도 같은 저작권,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이유다.